

# 또 하나의 나, 우리

Vol. 73 2015 WINTER



#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로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6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Vol. 73 2015 WINTER

### 04 Plan Report

Because I am a Girl - 조혼에 관한 보고서

### 08 우리는 플랜가족 1

한주연 후원자

### 10 지구촌을 간다 1

10년의 따뜻한 동행

### 14 플랜 긴급구호

네팔 대지진 6개월: 네팔이 다시 꿈꾸기 위해

### 16 우리는 플랜가족 2

제7회 The좋은모임 'StamPLAN'

### 20 Plan Board

짜이찌엔, 중국 시장에서 온 소식

### 22 우리는 플랜가족 3

2015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 26 지구촌을 간다 2

여러분도 이 기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 28 Campaign

송재림의 Dream Village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30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태국

### 32 나눔의 행복

건설공제조합

### 35 Enjoy Plan

### 36 Plan News

www.plankorea.or.kr 후원문의 02.790.5436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플랜코리아 @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권 제73호 발행일 2015. 12. 24 발행인 노영찬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55.5612



“결혼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았고,  
읽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14살에 결혼한 하우아의 이야기 (니제르)

“첫아이는 임신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어요.  
둘째 아이는 영양실조예요.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14살에 결혼한 자하나라의 이야기 (방글라데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제 꿈은  
조혼으로 산산조각 났어요.  
원치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죠.  
학교에 가는 대신 시댁에 가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16세에 결혼한 나르지스의 이야기 (방글라데시)



2초에 한 명



개발도상국 3명 중  
한 명



1천 5백만

여자아이들이 18세 이전에 조혼을 합니다.

**지금 조혼을  
막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1억 4천만 여자아이들이  
조혼을 하게 됩니다.**



조혼에 관한 보고서

**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조혼은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플랜은 아동권리협약(CRC)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결혼을 조혼으로 규정합니다. 국제 인권법과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여자아이들은 조혼으로 유년시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조혼으로 인해 여자아이들은 교육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고, 이른 임신으로 신체적인 질병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잠재적으로 인생 전체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조혼에 관한 보고서



**조혼의 원인** 조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난과 성차별, 아동인권 보호 장치의 부재, 교육 및 취업 기회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으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랜인터내셔널에서 2015년 11월에 발표한 '아시아 조혼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관습과 인식이 여자아이들에게 조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신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남편에게 더 순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자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딸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딸을 부양하는 비용을 덜 수 있고, 신부 지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부 지참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가족들은 여자아이가 빨리 결혼하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사회적 오명과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남녀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소녀들의 교육이나 고용 기회가 제한되면 조혼에 대한 순응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 결혼 최소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은 크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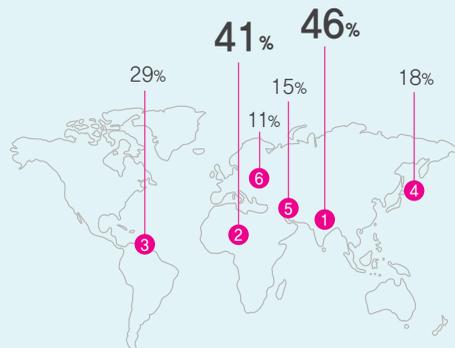
- 이른 출산은 조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출산 및 임신 합병증은 15세에서 19세 여자아이들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 이른 나이의 소녀들이 결혼을 하면 폭력과 학대, 강압적인 성적 관계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에이즈 등 성병 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 조혼은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중단시킵니다.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삶에 선택과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깨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혼의 해결책, 교육**

조혼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학교에 다니면 결혼을 늦추어 여자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할 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여자아이들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힘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신생아 사망률이 5%~10% 감소하고, 여자아이들이 중등교육을 1년 더 받으면 가계소득은 15~25% 증가합니다.

**조혼이 일어나는 곳**

- ① 남아시아
- ② 서부와 중앙 아프리카
- ③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 ④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
- ⑤ 아랍국가연맹
- ⑥ 서유럽과 중앙아시아



플랜은 조혼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여자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성과 모자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법률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 조혼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여자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과 기회를 주어 여자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응원해주세요!



# 후원자인터뷰 한주연후원자



저는 장애가 있어 특수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특별활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 그리고 사랑으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아이들이야”라고요. 그리고선 덧붙이셨죠.

## 너희가 받았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쥐보는 건 어떻게?



안녕하세요, 후원자 한주연입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요. 무료 급식, 무료 교육 등 여러 가지로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 예방백신의 부족 등의 이유로 소아마비에 걸리고, 설사 때문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부모들이 있고,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어린 소녀들이 있다고 해요. 그 때 수업을 듣던 저희들은 질병에 의해, 또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실명이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과 후원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빈곤국에서는 실명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배가 고파서 독초를 먹고 동공이 확장되어 결국 실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서 후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니까 용돈을 아껴서, 반 아이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으고, 모자란 후원금은 선생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아동 한 명을 후원하게 되었죠. 아동 자료를 받아보고, 편지를 쓰고, 일 년에 서너 번 편지가 오갔어요.

그 후로 고등학교 내내 후원을 이어가다가, 아동이 사는 마을이 자립을 해서 결연이 끝났어요. 그때부터는 단체를 꼼꼼하게 알아 보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추천해준 단체에 후원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곳에 후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다가 플랜을 알게 되었어요.

플랜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플랜의 큰 타이틀이기도 한 비종교, 비정치 기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랜의 CCCD(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프로그램이죠.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저의 마음을 끌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귀 기울여 주는 플랜의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캠페인을 보면 플랜은 인권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부수적으로는 신뢰도 평가에서 아동후원단체 중 제일 상위에 있다는 사실에 플랜이 공신력 있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랜코리아로 후원을 결정하게 됐죠.

제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후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장학금을 받고 무료 교육을 받았던 것 속에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저를 사랑으

로 키운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후원은 저를 위한 힐링이고 투자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후원을 하면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내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나눔의 행복을 아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남겨둘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로울 때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냉소적으로 되었을 때 후원은 저에게 연고가 되어주고 소독약이 되어주고 밴드가 되어줘요. 때로는 새로운 세포조직이 되기도 해요.

제 후원아동은 라오스에 사는 폐우이에요. 제 컴퓨터에 PDF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리더기가 깔려있어 그걸 통해 후원 자료를 읽어요. 폐우의 자료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죠. 폐우를 생각하면 많은 감정이 차올라요. 후원아동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후원은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 인간적으로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폐우는 저에게 참 귀한 존재예요. 편지를 쓰고 편지를 기다리고, 후원아동을 생각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해요. 폐우를 비롯해 그의 가족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귀한 사람들이예요.

저의 작은 도움으로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구해지고, 웃음을 되찾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어요. 저로 인해 행복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행복한 제가 있다는 게 후원이 주는 큰 선물이에요!





# 10년의 따뜻한 동행

플랜코리아의 오랜 후원자이자 홍보대사인 배우 김성령이 1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다.  
후원아동이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띠뽀는 첫 후원아동이자 지난 2006년 베트남을 방문해 가족의 인연을 맺었던 특별한 아동이었다.

“10년 전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하고 괜히 걱정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마을 어귀에는 띠뽀가 가족과 이웃 주민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김성령 홍보대사와 띠뽀는 10년 전 헤어진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다. 곁에 있던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다. 함께 골목골목을 돌아 띠뽀의 집으로 들어섰다. “예전 그 집에서 그대로 산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집이 싹 변했어요. 그때 비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였거든요. 마당에서 벽돌 위에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낡은 웅덩이의 고인 물을 마셔서 위생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여기 10년 전, 플랜이 세워준 우물이 있잖아요. 어머, 이젠 부엌도 생겼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아기 키우는 것은 힘들지 않은지 한참 동안 정신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며칠간 고민해 가져간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영양제, 홍삼, 포대기, 기저귀, 장난감, 화장품 등등. 환한 얼굴의 재회만큼이나 동네는 이미 잔치 분위기였다.

띠뽀는 보여 줄 것이 있다며 부엌 한 칸에 놓인 오래된 자전거로 향했다. “그때 선물로 주신 자전거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당시 띠뽀의 부모님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이공에서 일하고 있어 할머니와 띠뽀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다. 후원은 띠뽀가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띠뽀가 살고 있는 남하 지역은 플랜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와 보건은 물론, 식수 및 위생, 경제지원, 아동보호 등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후원 프로그램이 철수할 만큼 발전했다.



“수많은 후원자의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의 변화를 눈앞에서 지켜보니, 내 작은 도움이 인생의 씨앗이 되어 자라는 것보다 큰 보람은 없겠다 싶어요. 후원금은 절대 헛되게 쓰이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고생하고 있죠.”

김성령 홍보대사와 띠뽀는 함께 갔던 성당을 둘러보며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성령 홍보대사의 눈가가 다 시금 촉촉해졌다.

\*본 방문기는 매거진 얼루어 12월호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진: 포토그래퍼 정지은



이튿날, 김성령 홍보대사는 타이응옌 지역에 있는 한 학교를 찾았다. 숨이 차게 올라야 하는 비탈길 너머로 빛바랜 낡은 학교가 우리를 맞이했다. 오래된 야자수와 짙, 대나무로 만든 임시 교실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교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아이들에게 신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놀이 수업을 준비했어요.” 서울에서부터 들고 온 커다란 가방을 꺼냈다. 가방 속에서 색색의 구슬이 나오자 아이들은 눈빛을 반짝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록달록한 구슬을 꿰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꿰어 완성한 팔찌를 손목에 걸며 즐거워했고, 이내 엄마에게 선물한다며 곱게 주머니에 넣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였다.



곧이어 운동회가 시작됐다. 포대자루 안에 몸을 넣고 점프하는 이어달리기, 풍선 터트리기, 줄다리기가까지! 아이들과 몸을 부대끼며 엇치락뒤치락하는 사이, 해맑은 웃음꽃이 피었다.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모두에게 행복을 전염시켰다. 웃음에 웃음이 더해진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 해맑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플랜코리아는 김성령 홍보대사와 함께 아동결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 제3의 띠뿔을 또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말이다.



“세상에 착한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작은 일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요. 다만 정성을 나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매달 3만원의 후원금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요.”

네팔 대지진 6개월

# 네팔이 다시 꿈꾸기 위해

지난 4월 25일과 5월 12일 진도 7.8과 7.3의 지진이 네팔을 강타했다. 히말라야 산맥 주변 국가들에 엄청난 영향을 준 대지진은 네팔 75개 지역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31개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그중 14개 지역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280만 명의 네팔 주민들이 지진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40%에 달하는 1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진의 피해 속에 있었다.

플랜은 5가지 핵심 활동 분야인 아동보호, 교육, 식수 및 위생, 주거, 식량 및 생필품을 중심으로 네팔 주민들을 지원했다. 플랜의 활동으로 106,739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55,120명이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



<p>교육</p> <p><b>282</b> 임시학습센터(TLC) 건설</p> <p><b>18,353</b>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p>	<p>아동보호</p> <p><b>44,000</b> 어린이들에게</p> <p>심리 사회적 상담 지원과 교육, 생활 기술 훈련 시행</p>	<p>거주지</p> <p><b>46,190</b> 가구에</p> <p>텐트, 방수 천막 등 임시 거주 시설 공급</p>
<p>보건</p> <p>임산부를 포함한 여성과 어린이</p> <p><b>13,786</b> 출산과 영유아 양육 등의 모자보건 관련 지원</p>	<p>식수 및 식량</p> <p><b>40,026</b>가구에 식수 키트</p> <p><b>32,562</b>가구에 식량팩 지원</p>	<p>생계지원</p> <p><b>5,608</b> 사람들에게</p> <p>복구사업과 관련된 임시 일자리 제공</p>



## 플랜의 대응

“플랜인터내셔널은 비상 대피소와 식량, 식수를 공급하는 한편, 임시학습센터(TLC, TEMPORARY LEARNING CENTRE)와 보호소의 신속한 설치를 통해 네팔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먼 마을과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의 어린이들, 소녀, 여성에게 특별히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힐다 위나타사푸트라, 플랜 아시아지역 식수위생담당관 —

## 꿈을 잃지 않은 사람

지진이 마을을 덮치고 지나간 이후, 네팔 돌라카에 사는 만주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집과 학교는 무너졌고 13세 사춘기 소녀는 철판을 덧대어 지은 임시 천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 만주는 무너진 학교 대신 임시학습센터에 가기 위해 45분 가량 산길과 물길을 지나야 한다. 우기에는 강물이 불어서 어른도 건너기 힘든 길이다.

힘든 등교에도 불구하고 만주에게 공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죠.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제겐 공부하는 게 정말 소중한데, 많은 나라가 교육을 통해 발전했으니까요”

만주는 네팔 지진으로 학업이 중단될 상황에 마주했던 수천 명의 소녀 중 한 명이다. 지진으로 35,000개 이상의 교실이 무너졌지만, 플랜의 임시학습센터는 이를

대신하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고 만주의 교사인 트리타는 말한다.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꿔요.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싶고 언젠가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13세 소녀 만주의 바람처럼 아직 이곳에는 꿈이 있다.

## 네팔이 다시 꿈꾸기 위해

네팔 지진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네팔은 플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장기적 지원을 통해 회복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네팔이 재해 복구를 넘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플랜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플랜이 꿈꾸는 네팔은 어린이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여자 어린이들은 남자 어린이들과 평등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재해에도 끄떡없는 곳이다.



# 제7회 The좋은모임 'StamPLAN'

###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늦가을에 접어든 11월 말, 일곱 번째 The좋은모임이 합정역 인근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찬 바람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후원자와 지인들이 플랜코리아 후원자 모임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번 모임은 처음으로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플랜코리아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StamPLAN'이라는 부제에 맞게 편지쓰기, 에코백 만들기 등 활동에 참여하여 스탬프를 모아 선물을 받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멀리 전라남도 여수에서  
자녀와 함께 오신 후원자님부터  
남자친구와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  
신청하신 후원자님까지!  
늦가을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이날 모임은  
후원자님들의 열정으로 내내  
따뜻하였습니다.



첫 순서는 준비한 영상과 자료를 통해 플랜의 소개와 '양친회'로 시작된 플랜코리아의 역사,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기여를 하는지 등 그동안 후원자님들이 궁금해했던 점들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와 플랜 팔찌 만들기, 후원아동에게 편지쓰기와 부채 꾸미기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아동에게 편지를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부채를 정성껏 꾸민 한 후원자님은 "아동에게 편지가 잘 도착해서 조금이나마 기뻐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스탬프를 3개 이상 모으면 선물이 팡팡!  
한 가지의 활동을 끝마칠 때마다 스탬프(도장)를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였습니다. 또한 후원자님들과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하면서 더 큰 행복과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후원아동에게 선물 꾸러미를 보내 주세요

2016 새해맞이  
후원아동 선물 EVENT

2015년 12월 11일  
~ 2016년 01월 31일

신난다  
꾸러미



플랜연말연시카드, 플랜스티커, 플랜세계지도, 플랜노트, 연필세트, 종합장, 종이비누, 밴드, 빗세트

재미난다  
꾸러미



플랜연말연시카드, 플랜스티커, 플랜세계지도, 플랜노트, 연필세트, 종합장, 종이비누, 밴드, 빗세트, 플랜로그캔버스백, 플랜비치발리볼, 플랜종이저금통, 크레용세트, 연필

● 선물 품목

신난다  
꾸러미

3만원

또는

재미난다  
꾸러미

5만원

● 선물 보내는 방법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또는



전화  
(02-790-5436)

선물 꾸러미 구매 시 간단한 새해인사를 선택하여 아동에게 발송 가능

- 선물은 이벤트 기간 종료 이후 2016년 2월 중 일괄 발송됩니다.
-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개별 선물 추가는 불가능하나 중복 구매는 가능합니다.
- The좋은가게(www.planshop.co.kr)에서 상품 및 새해인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한 **아름인** 카드 포인트 플랜코리아에 기부하세요!

신한카드 포인트로 플랜코리아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처 소개에서  
**플랜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기부전용카드인 신한아름인카드를 이용하실 경우, 결제금액의 0.5%~0.8%씩 적립되는 기부전용 포인트를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와 함께 플랜에 후원하기!

#### 방법 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어요!



신한아름인  
사이트 로그인



기부처 소개 또는  
바로기부에서  
"플랜코리아" 검색



신한카드의  
포인트 확인



카드 정보,  
포인트 금액 입력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  
기부완료!

#### 방법 둘!

아직 기부할 포인트가  
많이 없다면, **카드결제**로  
기부할 수도 있어요!



신한아름인  
사이트 로그인



기부처 소개 또는  
바로기부에서  
"플랜코리아" 검색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 확인



카드 정보,  
기부할 금액 입력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  
기부완료!

#### 방법 셋!

신한카드 포인트나  
카드결제를 통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도 있어요!



신한아름인  
사이트 로그인



기부처 소개 또는  
바로기부에서  
"플랜코리아" 검색



정기기부템을  
선택



카드 정보,  
결제할 기부금 액수,  
기부기간 입력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  
기부완료!

\* 아름인은 신한카드에서 운영하는 기부전용사이트입니다.



Plan Board

# Zaijian (짜이찌엔), 중국 시상에서 온 소식 고마워요 후원자님!

중국의 시상 (Xi Xiang) 지역이 발전하여 더 이상 플랜의 도움이 필요 없기에, 플랜이 마을을 떠납니다. 플랜중국은 시상 지역이 아닌 더욱 열악하고 빈곤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이기에 이별은 슬픔이 아닌 기쁨입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상 지역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상 지역은 6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의 20%가 18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현재 시상 지역에는 15개의 초등학교, 7개의 교육 기관, 6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초, 물고기, 새우 등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요오드 결핍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학교에서 배웠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날 배운 걸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짜주세요. 이제는 편식하지 않아요.”  
- 준(Jun), 9세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나 고양이의 사체가 떠다니기도 하는 더러운 강물을 떠다마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플랜의 도움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좋아요.”  
- 리(Li), 마을 주민

“제 후원자는 프랑스 아저씨예요. 책도 보내 주시고 편지도 써주셨죠. 후원자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감도 얻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잉(Ying), 13세

>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99.8%로 증가했으며 빈혈에 걸린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  
92개의 급수시설과 885개의 우물, 저수조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식수 공급률이 4.51%에서 83%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8개 마을에 관계 수로를 건설하여 3천여 가구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화장실과 쓰레기장을 건설했습니다.

> **후원자와 후원아동간 우정의 다리 놓기**  
지난 15년간, 150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후원아동에게 후원자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원자와 후원아동이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식수대를 이용하는 어린이들



후원자님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는 어린이들

## 아동캔슬이란?

**졸업**  
만 18세가 되어 플랜프로그램 졸업

**이주**  
플랜 사업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

**철수**  
마을이 발전하여 현지사무소 철수

**사망**  
후원아동의 사망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한 캔슬

일반적으로 아동이 만 18세까지 결연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 외 다른 상황으로 결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아동이 캔슬되면 기존 결연 아동과 지역, 성별, 나이 등이 비슷한 아동으로 **자동재결연**되어 아동자료가 발송됩니다. 후원자님께는 캔슬레터로 후원아동과의 결연 중단 소식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캔슬레터로 아동이 살고 있는 현지에서 온 마지막 보고서로, 후원아동이 받은 혜택 및 캔슬 사유, 아동이 살고 있던 지역의 성과 보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후원관리팀: 02-790-5436**



# 2015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2015년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빈곤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네팔 대지진, 시리아 난민까지 상처가 많은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원자님이 계시기에 지구촌에는 사랑과 희망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린이들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플랜코리아를 사랑해주시는 '2015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 2007년부터 10명의 아동과 함께, The좋은후원상

김성주 후원자님은 나눔에 관심이 많은 후원자입니다. 플랜코리아를 비롯해 무려 스무 군데에서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고 합니다. 플랜코리아를 통해서 2007년부터 10명의 아이와 인연을 맺고 계신데요, 내년에는 아동을 더 많이 후원하신다고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성주 후원자님,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 무려 22통의 편지가, 서신교류상

중국에 있는 후원아동인 카이페이이의 유치원 생활에 큰 용기를 주고 계시는 김나연 후원자님은 2015년 일 년 동안 후원아동에게 11통의 편지를 쓰셨고, 후원아동에게서 11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한국의 계절이나 명절 소개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후원아동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계신 후원자님! 최고입니다!

### 후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후아유상

2005년부터 꾸준히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동을 후원해주고 계시는 조경래 후원자님! 인도네시아 아동과 8년 넘게 후원을 유지하며 45통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결연아동인 파키스탄의 와지란에게도 매달 편지를 쓰면서 아동과 우정을 쌓고 계십니다. 후원을 아름답게 유지하시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 플랜후원으로 더욱 화목한 우리, The좋은가족상

김성은, 김용대, 김나영, 김정현 후원자님은 가족 모두가 후원하고 있는 멋쟁이 가족입니다. 온 가족이 후원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 더욱 화목할 것 같습니다. 네팔과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김성은, 김용대, 김나영, 김정현 후원자 가족의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2015년 한 분 한 분 후원자님의 마음이 모여 플랜코리아는 더욱 힘을 내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에버랜드-플랜코리아 캠페인 홍보관! 에버랜드 내에 플랜코리아 캠페인 홍보관을 오픈했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의 꿈'이라는 주제로 '여자아이들의 꿈', '아프리카의 꿈', '지구촌 아이들의 꿈' 등 세 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체험이벤트와 응원메시지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 캠페인 홍보관은 유토피안 T라운지 안 T익스프레스와 눈썰매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몸과 마음을 녹일 따뜻한 장소가 필요할 때는 플랜코리아 홍보관에 들려주세요!

후원자 어워드를 빛낸 김성령 홍보대사! 플랜코리아의 김성령 홍보대사가 2015 후원자 어워드에서 시상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최근 베트남 후원아동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고 돌아온 김성령 홍보대사는 그 날의 의미 있는 만남을 전하며 후원자들과 감동을 나눴습니다.

분위기를 한껏 달궂준 홍인규 홍보대사! 2015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는 홍인규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홍인규 홍보대사의 사회 덕분에 이 날 시상식 분위기가 더욱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 플랜코리아는 내가 알린다. 특별상

판도라 TV의 대표인 김경익 후원자님은 플랜코리아를 다양하게 알리고 계신 후원자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잊지 않고 플랜코리아 후원을 언급해주시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플랜코리아 후원에 대해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4명의 아동을 더 후원해주신 후원자님은 멋쟁이! 시상식이 끝나고 플랜코리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신 김경익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 지인들과 함께 하는 나눔. The좋은사람들상

플랜코리아에는 지인에게 나눔을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활약이 돋보인 윤여일 후원자님! 윤여일 후원자님이 가는 학교는 나눔 바이러스가 꼭 퍼집니다. 아는 지인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급 후원을 통해 나눔을 퍼뜨리고 계시는 후원자님으로 인해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상

2015년 여름부터 학기 중에도 꾸준히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정혜영 봉사자님과 2009년부터 6년 동안 번역 봉사를 해주시는 최다나 봉사자님이 2015 자원봉사자로 뽑히셨습니다. 298명, 16384시간의 봉사가 있기에 플랜코리아는 올해도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번역, 사무, 행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더욱 따뜻한 세상을. The좋은스토리상

2015년 플랜코리아 직원들이 뽑은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The좋은스토리상의 주인공은 바로 숲속해달별 어린이집 친구들입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읽다가 후원을 결심하게 된 어린이집 아이들은, 후원에 참여하기 위해 바자회 기획부터 물품 만들기까지 스스로 주도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 함께 해요. The좋은파트너상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의 신재민 차장님은 현대·코िका 드림센터부터 글로벌 청소년 봉사단 해피무브까지 플랜과 함께 해주신 고마운 파트너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그룹을 플랜코리아와 연결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플랜코리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The좋은기업상

2015년도 협력사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플랜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플랜코리아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에버랜드가 The좋은기업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으로 개도국 아이들을 지원하고, 공간기부를 통해 플랜코리아 홍보관 오픈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에버랜드에 큰 감사를 전합니다!

# 여러분도 이 기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4박 5일의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갑자기 몰려드는 일 때문에 참으로 바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지쳐서 봉사활동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봉사활동이 끝날 때쯤 어느새 고마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움을 주러 와서 너무나 큰 힐링을 받고 가는구나! 고맙다 애들아~”



봉사활동 첫째 날 새벽 6시 인천공항 집합, 둘째 날 새벽 2시 호텔 로비 집합 후 국내선으로 이동 등의 강행군을 거쳐 들어간 마스바테는 예상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 나무로 이은 벽과 흙바닥,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 봉사대원들의 눈빛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를 그려서 걸어놓은 것을 본 순간, 반가움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KDB대우증권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태풍이 와도 끄떡 없는 세이프스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봉

사단의 첫 활동은 세이프스쿨로 지어질 콘트리트 한쪽 벽에 멋진 벽화를 그리는 일과 아이들의 부서진 책걸상을 수리해주는 일이었다. 벽화를 그려본 적이 없는 직원이 대부분이라 살짝 겁도 났으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아주 원활하게 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벽화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왔다. 한편, 반대쪽에서는 책걸상 수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수리된 적이 없는 책걸상들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50여 개의 책상들이 수리되었고, 20여 개의 새 책상이 제공되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새로운 책

상을 선물한 것보다도 책걸상을 수리하는 작업이 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동네 주민들이 책걸상을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 연신 흐뭇했다. 셋째 날, 숙소에서 한 시간 반 거리를 달려 학교를 다시 방문했다. 이날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제수업과 미술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증권사 특성을 살린 경제수업은 빙고 게임과 함께 진행되어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한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고, 이긴 팀을 축하해주는 아이들의 진실한 마음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미술수업은 에코백 위에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처음 물감을 사용해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그림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단원들을 흐뭇하게 만들

었다. 본인이 직접 그린 에코백을 들고 즉석 사진을 찍을 때 부끄러워하는 모습과 신기해하는 모습 등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마지막 날은 아이들과 함께 미니올림픽을 진행했다. 수업과 미니올림픽을 진행하고 나니 처음에는 우리를 어려워하던 아이들과 어느덧 스스럼없이 손을 흔들고 눈을 마주치며 교감하게 되었다.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인사는 친한 친구를 배웅해주는 것처럼 변해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의 교감은 인생에 있어 하나의 큰 의미가 되어버렸다. 집에서 쉬고 싶다고 생각한 나 자신에게 쉬는 것보다 훨씬 큰 힐링을 주었던 이번 봉사활동.  
“여러분도 이 기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글: KDB대우증권 박재호 대리  
사진: KDB대우증권 임직원 봉사단





## 송재림의 Dream Village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Dream Village 1주년 나눔파티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꿈꾸며 시작된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캠페인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송재림 홍보대사와 함께 1주년을 축하하고 마을에 생긴 변화를 나누기 위해 드림빌리지 1주년 나눔파티라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모두 2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모여 드림빌리지의 지난 1주년을 돌아봤다. 송재림 홍보대사가 직접 1년간의 드림빌리지 사업을 보고하고 캄보디아 방문 이야기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다. 또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송재림 홍보대사의 봉사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판매, 현장 아동결연, 기부상품 판매 등 드림빌리지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Dream Village 1년의 기록

드림빌리지 캠페인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플랜코리아 송재림 홍보대사가 직접 제안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다.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아동결연후원, 지역개발사업 후원, 기부상품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놓았다.

언제든 드림빌리지를 방문해 진행되는 사업들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송재림 홍보대사의 의견을 반영해 아시아 국가 중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고, 2014년 11월 캄보디아 씨엠펜 스테이 스남 지역에서 첫 번째 드림빌리지가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현지에 가장 지원이 필요했던 우물 건립이었다. 첫 방문과 더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금과 이벤트들이 진행되었고, 국내외 사람들이 드림빌리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직접 마을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둘러보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채우고자 했던 송재림 홍보대사의 마음과 정성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드림빌리지는 모두가 함께하는 캠페인이 되고 있었다.

2015년 6월

드디어 지난 6월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는 우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다. 그 순간을 함께하고자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손수 울타리를 만들어 선물했다. 새 우물에서 물을 떠 마을 주민들과 나누며 깨끗한 식수를 마실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정한 보건소도 방문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2015년 12월

보건소 개보수 공사가 시작된다는 현지의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며 이 보건소를 통해 드림빌리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다. 지난 1년간 전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함께 만들어 더욱 뜻깊은 드림빌리지는 이렇게 완성되어가고 있다.



### 또 다른 드림빌리지를 꿈꾸며

송재림 홍보대사는 캄보디아 드림빌리지 1년을 보내고, 더 많은 지역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 2차 드림빌리지 사업국가를 태국으로 선정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드림빌리지에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송재림의 드림빌리지에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태국  
Thailand

위치: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  
수도: 방콕  
언어: 태국어  
인구: 약 65,104,000명 (2015년 기준)  
평균 수명: 73.1세 (2015년 기준)  
식자율: 93.5% (2015년 기준)  
GDP (1인당 기준): \$10,023/ 세계92위 (2012년 기준)  
인간개발지수(HDI) 국가 순위: 103위 (2014년 기준)

## 태국 Thailand

태국의 정식 국명은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으로,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다. 국토 면적은 514,000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2.3배, 남한의 약 5배이다. 국토의 반 이상이 삼림이지만, 평야가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하였다. 열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여름·우기·겨울의 세 계절로 나뉜다.

민족은 타이족 75%, 화교 14%, 기타 소수 민족 11%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의 95%가 불교신자로 불교의 영향력이 크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소수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있다.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같은 공식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적 학대와 아동 노동력 착취를 위한 아동 인신매매도 성행하고 있다.

### 플랜태국에서는?

플랜태국은 600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36,700명의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교육, 건강, 생계 유지와 보호 및 지역 사회 참여 독려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플랜은 1999년 치앙라이(Chiang Rai) 지역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치앙마이(Chiang Mai)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린이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 출생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있으며, 12개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마을 자립을 위한 활동을 돕고 있으며, HIV/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12명의 여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0개 이상의 유치원이 건설되었고,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플랜은 '소녀와 지역사회를 위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단계'(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Daughters and Communities Centre, DEPCDC)와 협력하여, 학대 또는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된 여자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을 구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랜코리아는 특히 열악한 환경의 소수 민족 '모켄족'을 위해 'The 좋은 선물'을 통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식수 및 위생 등 종합적인 후원을 펼치고 있다.

# 건설공제조합 플랜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건설공제조합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인도네시아 누사텡가라 주 시카 구 타나와우 지역, 부 우타라 마을에 울로벨라 초등학교 개·보수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개·보수지원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이 해외현장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으로, 작년 11월 플랜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진행된 울로벨라 초등학교는 3개 교실의 지붕이 무너지고, 4개 교실이 파손되어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울로벨라 초등학교에 3개의 교실을 신축하고, 4개의 교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하였고, 올해 10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0여 명의 학생들과 학교 교사들이 다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에는 학교 개·보수 완료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건설공제조합 임직원과 시카구 대표, 시카구 교육부 대표, 마을주민, 학생 그리고 플랜코리아 및 플랜인도네시아 담당자가 참여해 한마음으로 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

건설공제조합은 2013년 필리핀, 2014년 및 2015년 인도네시아에 재활용 PC를 기증하는 등 중고 PC 해외기부를 통해 개발도상국 정보화를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963년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건설보증기관이며, 설립 이후 보증 및 용자 등 건설업에 필요한 신용공급과 자금유지를 통해 오늘날 건설산업이 국가 중추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주된 사업인 보증, 용자 외에도 공제(보험), 세종필드골프클럽 및 건설경영연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의 종합 건설금융기관에 걸맞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품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타 사회공헌 활동

### CG 사랑나눔리 봉사단

CG 사랑나눔리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센터 방문, 연탄배달 등 지역의 소외된 곳을 찾아 전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임직원 나눔계좌 조성 및 운영

임직원 나눔계좌를 조성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드림 하우스 프로젝트, 취약계층 조손가정을 후원하는 희망드림 결연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1사 1촌 농촌봉사 활동

1사 1촌 농촌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 한해도 플랜코리아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 발급 방법

### 1.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http://www.plankorea.or.kr) ▶ 마이페이지 ▶ 오른쪽 하단 기부금영수증출력 클릭!

- 2016년 1월 1일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서비스가 2016년 1월부터 중단됩니다.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해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2016년 1월 중순 이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자명과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전 확인사항

- 홈페이지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기부금 세액공제율: 3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25% 적용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전화: 02-790-5436  
이메일: [plan\\_a@plankorea.or.kr](mailto:plan_a@plankorea.or.kr)  
카카오톡: 친구찾기 ▶ 플랜코리아

#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 틀린 Q 그림찾기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참여방법 1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 참여방법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6년  
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 가을호 정답▶

가을호 이벤트 당첨자  
구수진, 송은주, 양은영, 우아림, 이예정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플랜코리아 소식

## 홍보대사와 함께 빈곤퇴치 캠페인 진행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플랜코리아가 진행하는 빈곤퇴치 캠페인을 알리고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빈곤퇴치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랜코리아 사무실이 위치한 판교에서 3일간 진행된 거리 캠페인에서는 "Stop Child Poverty"를 주제로 아동결연 후원, 여자아이들의 교육권 지지를 위한 SNS 참여, 나눔팔찌 구매 등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었다. 특별히 캠페인을 위해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들도 출동했다. 개그맨 김대희, 김지호, 허민, 유민상, 박나래 홍보대사와 배우 송재림, 문기영 홍보대사가 길거리에 나와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동전 모금에 직접 나서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다.



## 베트남 청소년을 위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착공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과 현대건설,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착공식을 가졌다. 3개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는 각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건설관련학과 및 자동차 정비학과를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건설안전 교육, 배관 및 용접 과정 등 건설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정비 학과 실습실 개보수와 교과과정 개정, 대리점과의 협력을 통한 인턴십 제공으로 실무 능력을 함양한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와 플랜베트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노이공업전문대학과 건설공업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 교과개발 및 교육 운영 지원에 나선다.



## 북한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북한지원사업 진행

플랜코리아가 북한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플랜코리아의 북한지원사업은 아동영양지원, 보건의료, 교육지원, 긴급구호 등으로 나뉘어 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동영양지원사업은 저체중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내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식, 보육용품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사업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 기자재와 학교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 밖에 북한 내 낙후된 의료장비와 의료기술 보조, 병원 건립 등 보건 의료사업과 재해를 대비하는 역량 강화 및 재해 상황 후 재건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사업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 초강력 엘니뇨 발 빠른 지원 필요

세계 곳곳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이다. 에티오피아, 케냐, 남수단, 우간다에서는 엘니뇨로 인해 가뭄, 식량 부족, 홍수,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피해가 극심하여 2016년 초에는 1천 5백만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랜은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아동들과 임산부들을 위한 식량과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에 대한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엘니뇨는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발 빠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 플랜지구촌 소식

##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진 긴급구호 시작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두 나라에서 최소 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 7백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건물 수천 채가 파손됐다. 플랜은 플랜인도와 플랜파키스탄 두 사무소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긴급구호 활동에 즉시 착수했다. 외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지진은 4월 말 8천 8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규모 7.8의 네팔 지진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이고, 2005년 파키스탄 카쉬미르 지역에 규모 7.6의 대지진이 발생해 7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 11월 19일 세계 화장실의 날, 화장실에 대한 진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배변을 하고, 2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생시설로의 접근이 어려우면 설사병과 장내 기생충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설사병으로 8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식수 및 위생과 관련된 질병으로 매년 3백 5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화장실은 여자아이들의 교육과도 연관이 있어 학교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여자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은 11% 올라간다. 1990년 이후 18억 명을 위한 위생시설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위생시설이 부족한 곳은 많다. 플랜은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식수와 위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신수지, 이정수 홍보대사 SK플래닛 사내행사 참여

신수지, 이정수 홍보대사가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두 홍보대사는 점심시간에 SK플래닛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박람회, 커피나누기 등 후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선을 끌고, 아동결연, 기부상품 구입하기 등 지구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신수지, 이정수 홍보대사는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후원을 부탁 드린다"고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하며, 아동결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는 SK플래닛 임직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SK플래닛은 플랜코리아의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3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 사회공헌 앱 애플트리 네팔대지진과 송재림 드림빌리지 후원금 전달

기부형 리워드 서비스 기업 애플트리가 사회공헌 앱 '애플트리'를 통해 모금한 네팔대지진 후원금과 송재림의 드림빌리지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중 네팔대지진 후원금은 지난 7월 1차 모금 이후 두 번째 모금이다. '애플트리'는 사용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기부와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는 어플이다. 적립한 포인트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플랜코리아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수백만 여자아이들이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후원금은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지구촌 소녀들이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 코엑스 겨울축제 참가

코엑스 광장에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핑크 트리가 세워졌다. 플랜코리아는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린 2015 코엑스 겨울축제에 '지구촌 소녀들이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참가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현실을 알리고, 소녀들의 꿈을 응원했다. Because I am a Girl의 상징 컬러인 핑크색으로 트리를 설치하고, 지구촌 소녀들의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는 오너먼트 달기, 희망메시지 적기, 포토이벤트 등 다채로운 참여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홍보대사가 짝짝 산타로 참가해 지구촌 소녀들을 위한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올해 2회를 맞은 코엑스 겨울축제는 '따스한 마음'을 주제로 기업들과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 미셸 오바마와 플랜의 소녀대표단, 여아들의 교육권에 대해 이야기하다

지난 9월 뉴욕, 전 세계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는 유엔개발정상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춰 각국의 플랜 소녀 대표단이 여자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그중 필리핀의 16세 너파하디는 패션 잡지 글래머(Glamour)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여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육받은 소녀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와 전 호주 총리 줄리아 길러드,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패널로 함께 참가했다. 미셸 오바마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6천 2백만 여아들을 생각하면, 나 자신과 딸 아이를 생각하게 된다. 학교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성폭력을 막기 위한 플랜니카라과의 활동

니카라과의 북카리브해자치구역(RACCN)은 빈곤과 남성우월주의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곳이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묵인되거나 법적인 처벌은 거의 받지 않는다. 이 자치구역 내에 전통적인 법 시스템이 있어 이를 따르는데, 성폭력은 그저 약간의 벌금형에 그칠 뿐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88%는 십대의 어린 소녀들이다. 이로 인한 십대 임신도 큰 문제로,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십대 임신율을 보인다. 플랜니카라과는 성폭력의 발생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 정부와 함께 걸 파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범죄 조사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한 소녀들을 위한 지역 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 인도 뭉바이 슬럼가의 찾아가는 학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지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뭉바이 가구의 41.3%가 슬럼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인도 170만 명의 초등학생을 다녀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플랜은 2008년부터 파트너 단체인 Door Step School과 함께 이 지역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교(School on Wheel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가 직접 찾아가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뭉바이 내 4개의 지역에 학교 수업 버스가 멈춰서 교육을 제공해 거리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 따뜻한 겨울 플랜과 함께 만드는 변화

안녕하세요,  
세네갈의 은둠베입니다.  
플랜의 후원으로 달라진  
우리 마을을 소개할게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을 마셔요!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마을 전  
체가 변하게 돼요!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 □ 플랜코리아의 기존후원자시만 체크해주세요!

이름: (한글) (영문)  남  여  
주소:  
전화번호:  
e-mail:

### □ 해외아동정기후원

저는 \_\_\_\_\_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국가  선호사항없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성별  선호사항없음  남아어린이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한국어  영어

### □ 1만원특별정기후원

백투스쿨키트(Back-to-school kit)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 필요한 책, 연필, 공책, 신발 등을 선물합니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더욱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 후원금결제방법

자동이체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후에 연락을 드려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  
습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 등록 및 소식  
제공,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플랜코리아  
카카오톡 @plankorea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 02)790-5436 ✉ kno@plankorea.or.kr 🌐 www.plankorea.or.kr

# The 좋은가게 OPEN EVENT



### 플랜 스테인리스 텀블러

올 겨울 플랜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자연도 아끼고,  
후원도 동참해주세요!

~~16,800원~~ 13,000원



### 플랜 로고 머그

플랜 로고 머그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세요!  
플랜 로고 머그 2개 구매시,

~~12,000원~~ 10,000원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The 좋은가게에서 구매해보세요.



세계지도



노트(BAAG)



한복카드



한복스티커



생일카드



꽃말엽서



후원문의 02.790.5436  
[www.plankorea.or.kr](http://www.plankorea.or.kr)